



주택 보유세 국세청 조건표 살펴보니

■ 6억8천만원짜리 주택의 사례

보유세 217만원 → 701만원 ‘세금폭탄’

(2006년) (2009년)

예상된다.
 ◇보유세 부담 커진다=올해 건설과 통부가 발표한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전국 평균 16.4%, 강남권과 분당 등 신도시시는 23~39% 상승했다. 그러나 이 가격이 연초 집값상승으로 현 시세의 60%선에 불과해 ‘시세의 80%’를 맞추려는 정부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내년에도 20% 이상 상향조정이 불가피하다.
 공시가격이 오르지 않더라도 보유세는 해마다 증가한다. 정부가 종부세의 과표적용률을 작년 50%에서 올해 70%로 높인 데 이어 2008년 90%, 2009년 100%까지 올릴 계획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2009년 보유세 실효세율을 공시가격의 1%까지 맞출 계획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종부세 과세 기준금이 6억원 초과분의 100%까지 높아지면서 ‘세금 폭탄’이 현실화할 것으로

중부세 과표적용률 70% → 2009년 100% 상향 2주택자 시세차익 적은곳 올해 때도 고민해야

도 ‘개인별’ 합산에서 올해부터 ‘가구별’ 합산으로 바뀌어 종부세 과세대상이 크게 늘어났다.
 재산세는 올해 과표나 세율은 변동이 없지만, 오히려 공시가격이 누진구조로 세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부담이 늘고, 2008년부터는 55%, 2009년 60%로 세율이 상향조정돼 6억원 이하 주택도 재산세 부담이 커진다.
 ◇2009년 보유세 얼마나 낼까=올해 공시가격은 6억8천100만원으로 결정된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34평형을 보자. 보유세 산출액이 한도도 넘지 않는다고 볼 때 이 아파트의 올해 보유세(재산세+교육세+종합부동산

세+농어촌특별세)는 216만8천400원으로 예상된다.
 현재 대치 은마아파트 34평형의 공시가격이 시세(11억~12억원)의 60% 안팎이고, 정부가 공시가격의 책정기준을 시세의 80%로 잡는 것을 감안해 내년에도 올해와 비슷하게 공시가격이 20% 오른다(8억1천700만원)고 가정하면 2007년 보유세는 357만1천200원으로 전년 대비 1.6배(64.69%) 오른다.
 2008년부터 2009년까지는 정부의 8.31대책과 3.30대책 등이 효과를 발휘해 집값상승률이 절반인 10%로 둔화됐다고 가정한다면 2008년 보유세는

488만1천640원, 2009년 701만4천원으로 증가한다. 공시가격이 6억원이 넘어 올해 새로 종부세 대상에 포함된 주택이라 해도 3년 후에는 보유세 부담만 223%나 늘어나는 셈이다.
 ◇2주택자 때도 고민을=전문가들은 집이 한 채 뿐이고, 소득이 많지 않은 경우 보유세 부담을 걱정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이런 사람은 집값이 계속 오른다해도 집을 팔지 않는 한 ‘무용지물’이고, 해마다 내야 하는 보유세 부담이 더 큰 고민이 될 수밖에 없다.
 강남권에 아파트를 2채 보유한 사람은 올해 보유세를 내는 게 나을지, 파는 게 나을지 고민해봐야 한다. 보유세도 부담이지만 내년부터는 2주택자에 대해 양도세가 50%로 증가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도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이종태기자 jtlee@kwangju.co.kr

현대중공업그룹이 현대건설 지분 26.68%를 인수한 가운데 현대중공업과 현대중공업그룹의 경영권 다툼이 본격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현대건설 인수가 ‘변수’

현대중공업그룹이 현대건설 지분 26.68%를 인수한 가운데 현대중공업과 현대중공업그룹의 경영권 다툼이 본격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현대중공업그룹은 현대건설이 “전략적 M&A를 시도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는데 대해 “현대건설을 보호하는 ‘백기사’로서 상선 지분을 매입했을 뿐이며, 현대그룹이 ‘선’의 물에 하고 있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현대중공업그룹의 ‘백기사론’에도 불구하고 5천억원이 넘는 막대한 자금을 동원해 상선 지분을 시장가격의 20%가 넘는 고가에 사들인 점, 현대그룹을 뚫었다면 정작 현대그룹과는 아무런 상의도 없다는 점 등을 고려했을 때 현대중공업그룹이 조만간 본격적인 경영권 공격을 시작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현대건설 인수가 관건” = 현대그룹과 현대중공업의 경영권 다툼이 가시화되면서 M&A 시장의 대어로서 나온 현대건설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사실 현대그룹이 현대건설의 인수를 적극 추진한 것도 현대건설이 보유하고 있는 현대상선 지분 8.69% 때문이다.

현재 현대그룹은 지주회사인 현대엘리베이터 17.16%와 현 회장 등 특수관계인 3.37% 등 직접지분이 20.53%이며 케이프존 10.0%, 우리사주 2.0%, 기관투자자 등 기타지분 4.73%가 포함된 우호지분 등 현대상선의 지분 총 37.26%를 확보하고 있다.

반면 현대중공업그룹측 지분은 최근 매입한 26.68%에다 KCC의 지분 6.26%를 합하면 총 32.94%에 이르기 때문에 현대건설 보유 지분 8.69%를 어느 쪽에서 확보하느냐에 따라 현대상선의 경영권이 판가름나게 될 전망이다.

◇“현대중-KCC 준비된 행동이었나” = 현대그룹과 현대중공업의 경영권 분쟁에 주목받고 있는 것이 2년전 현대그룹과 치열한 경영권 분쟁을 벌였던 KCC다.

현정은 회장은 “현대중공업 대주주인 정몽준 의원과 KCC 정몽진 회장이 현대상선을 뺏기 위해 사전에 준비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한 달 전 M&A 시장에서 KCC의 현대건설 인수 참여 가능성을 언급했던 메릴린치증권의 보고서가 다시 관심을 끌고 있다. /연합뉴스

■ 30년 이상 장수 흑자기업

상장사명	흑자기간	비고	상장사명	흑자기간	비고
기온전선	59년	전선 제조업체	삼성SDI	35년	삼성계열 디스플레이업체
유한양행	52년	제약업체	신영증권	35년	증권회사
대한전선	51년	전선 제조업체	녹십자홀딩스	34년	녹십자 계열 지주회사
한화인보	49년	제약업체	농심	34년	리먼 스낵업체 1위
삼일통신	49년	운송회 제조업체	국도화학	34년	에폭시수지 제조업체
대성산업	48년	에너지업체	대덕전자	34년	인쇄회로기판 제조업체
태광양행	47년	화장품 제조업체	삼성전자	33년	보험업체
신도리코	46년	복사기 제조업체	대웅	33년	대웅제약 대웅산업의 모회사
한일시멘트	44년	시멘트 제조업체	한올제약	33년	제약업체
남양유업	42년	유제품 제조업체	삼영무역	33년	기초화학약품 무역
보령제약	42년	제약업체	POSCO	33년	철강업체
(주)신동	42년	치과용 기구 도소매업체	한국전자공업	33년	광 무선통신부품 생산업체
현대약품공업	41년	제약업체	심화제인트	32년	건축용도로 생산업체
동일구무벌	40년	산업용 고무벨트 생산업체	한미약품	32년	제약업체
삼천리	40년	에너지업체	동양식품	32년	식도강판 생산업체
넥센	38년	재생타이어 공급업체	제일모직	31년	삼성계열 의류·화학업체
대덕GDS	38년	인쇄회로기판 제조업체	BYC	31년	속옷 생산업체
삼성정밀화학	37년	삼성계열 화학업체	신영외교루	30년	리제리 제조업체
삼성물산	35년	삼성계열 유통·건설업체	성보화학	30년	농약 제조업체

30년 이상 장수 흑자기업 비결은?

자기분야 한우물 경영 ‘넘버원’ 차지

주기적으로 찾아오는 경제위기를 이겨내며 30년 이상 연속으로 이익을 낸 기업에게는 뭔가 특별한 것이 있다.
 이들은 수십년 동안 한우물만 파서 자기분야에서 ‘넘버원’ 자리를 차지하고 있거나 안정적인 시장 혹은 확실한 매출처를 확보한 기업들이다.

◇가운전선·유한양행·대한전선 반세기 이상 흑자=1일 한국신용평가정보와 각 업체에 따르면 2005회계연도 기준으로 30년 이상 흑자를 기록한 것으로 확인된 유가증권시장 상장사는 38사에 달했다.

790개 유가증권시장 상장사 가운데 50년 이상 흑자를 기록한 기업은 가운전선과 유한양행, 대한전선 등 3사 뿐이다.

◇장수 흑자비결은 업계 1위=장수 흑자기업들의 면면을 보면 ‘한우물’ 경영전략을 통해 자기분야에서 1위에 오른 기업이 많다.
 국내 화장품 시장점유율 1위 업체

인 태평양은 47년 연속 흑자를 기록을 보유하고 있으며 유제품시장 선두주자인 남양유업도 42년 연속 흑자기업이다.

리먼·스낵업체 1위인 농심(34년·이하 연속 흑자기록)과 란제리시장 1위인 신영외교루(30년), 내의업체 1위인 BYC(30년)도 30년 이상 흑자기조를 이어왔다.

◇제약회사·삼성계열사 다수 포함=유한양행을 필두로 한독약품(49년)과 보령제약(42년), 현대약품(41년), 녹십자홀딩스(34년), 한올제약(33년), 대웅(33년), 한미약품(32년), 중외제약(30년) 등 무려 9곳이 30년 이상 연속 흑자를 기록했다.

삼성정밀화학이 69년 이후 37년 연속 흑자를 기록한 것을 포함해 삼성물산(35년), 삼성SDI(35년), 삼성화재(33년), 제일모직(31년) 등 삼성계열 5사가 30년 이상 흑자를 기록했다. /연합뉴스



외국의 관광객 김밥만들기 체험

호텔 이비스 엠베서더 명동점이 1일 오전 개점을 기념해 명동거리에서 개최한 외국인 관광객 김밥 만들기 체험 이벤트에서 외국 관광객들이 김밥을 만들어 보고 있다. /연합뉴스

4월 중 수출, 257억7천만달러

4월에 수출이 고유가와 환율하락 등 악재에도 불구하고 3개월 연속 두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하며 선전했고 무역수지 흑자도 2개월 연속 10억달러 이상을 기록했다.

그러나 주력품목의 수출이 둔화되거나 감소하고 1~4분기에 수출업체 수가 작년 동기보다 1천개 가까이 감소하는 등 내용면에서는 대외여건 악화로 인한 부작용이 현실화되는 모습을 보였다.

1일 산업자원부가 발표한 4월 수출입 동향(통관기준 잠정치)에 따르면 수출액은 257억7천만달러로 작년 동월보다 12.7% 증가, 3개월째 두자릿수 증가율을 이어갔고 수입액은 242억3천만달러로 14.0% 늘어났다. 무역수지 흑자는 15억5천만달러로 작년 동기보다는 8천

만달러 줄었지만 올해 들어서는 가장 많았다.
 4월 수출은 자동차가 1.2% 증가에 그치고 무선통신기기(-8.8%), 석유화학(-0.1%), 철강(-7.5%) 등은 감소하는 등 주력산업에서 부진했다. 반면 고유가나 감소하고 1~4분기에 수출업체 수가 작년 동기보다 1천개 가까이 감소하는 등 내용면에서는 대외여건 악화로 인한 부작용이 현실화되는 모습을 보였다.

수입은 원유가 53.3% 증가하는 등 원자재가 18.2% 늘어나고, 소비재도 승용차(44.4%), 휴대폰(716.7%), LCD TV(55.4%) 등을 중심으로 23.4% 증가했으며 자본재도 반도체제조장비(13.8%), 산업기계(26.3%) 등에서 크게 늘었다.
 이에따라 1~4월 수출은 작년 동기보

고유가·환율하락 등 악재불구 3개월 연속 두자릿수 증가

다 11.2% 늘어난 997억5천만달러, 수입은 17.6% 증가한 962억9천만달러, 무역수지 흑자는 43억4천만달러 감소한 34억7천만달러를 기록했다.

산자부는 수출은 당초 전망세를 유지하고 있으나 향후 주요 수출국의 경제성장이 크게 둔화되거나 환율하락에 따른 채산성 악화로 수출을 포기하는 사례 등이 나타나 경우 둔화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우려했다.

실제로 1~4분기 수출업체 수는 2만436개로 작년 동기보다 957개나 줄었다. 그러나 올해 수입은 유가급등으로 연초 전망인 2천950억달러를 크게 상회할 것으로 예상돼 무역수지 흑자가 상당폭 감소할 것으로 산자부는 전망했다. /연합뉴스

주식·채권 등 해외 펀드 투자 붐

투자규모 15조원 돌파

최근 해외펀드 붐으로 펀드를 통한 해외시장 투자규모가 15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1일 자산운용협회와 한국펀드평가 등에 따르면 3월 말 현재 국내 운용사를 통한 해외 자산의 직·간접투자와 외국운용사의 해외펀드를 통한 해외자산에 대한 투자규모가 각각 6조5천941억원과 7조9천646억원 등 모두 14조5천587억원이나 되는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국내운용사를 통한 해외 투자규모는 4월25일 현재 7조7천756억원으로 지난달 말보다 1조1천134억원이나 늘어난 데다 해외펀드의 수탁고도 지속적으로 늘고 있어 현재 해외펀드를 통한 투자규모는 최소한 15조6천721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추산했다.

이는 지난해 말 현재 10조5천817억원에 비해 무려 5조904억원(48.1%)이나 늘어난 것이다.

한국펀드평가가 이동수 펀드애널리스트는 “최근 원화 가치가 상승세를 보이면서 일각에서는 해외펀드가 주춤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으나 꾸준한 해외펀드에 대한 투자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장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카드사 연체율 5%대 진입

신용카드사들의 연체율 하락세가 1~4분기에 계속 이어지면서 5개 신용카드사의 실질연체율(대환 포함)이 평균 5%대로 진입했다.

1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올해 1~4분기 기준 롯데, 삼성, 신한, 현대, LG 등 5개 카드사의 실질연체율은 평균 5.90%를 기록, 지난해 말의 6.59%보다 0.69%포인트 하락했다.
 회사별로는 삼성카드가 14.23%의 연체율을 기록, 지난해 12월말 15.83%보다 1.6%포인트 낮추며 연체율을 가장 많이 줄였지만 여전히 카드사 중 유일하게 10% 이상을 유지했다.

삼성카드사는 “올해 말까지 10% 이하 연체율을 무난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음으로는 LG카드가 지난해 말 7.89%에서 1.4분기에는 6.50%로, 처음으로 6%대 연체율을 기록했다. 현대카드사는 12월말 4.2%에서 3월말에는 3.6%까지 낮췄으며 신한카드사는 2.79%의 연체율로 지난해 12월말 대비 연체율이 0.17%포인트 떨어졌다. /연합뉴스

상장사 주주 10명 중 6명 수도권 거주

상장 기업 주주의 10명 중 6명 가량은 수도권에 거주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1일 증권선물거래소가 집계한 ‘상장사 지역별 주주 현황’ 자료에 따르면 상장사 주주 숫자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345만4천명으로 파악됐다.

이 중 서울에 거주하는 주주가 전체의 32.9%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경기 19.5%, 부산 7.0%, 대구 5.1%, 경남 5.0%, 전북 4.6%, 인천 3.9%, 울산 3.2%, 경북 2.8%, 광주 2.8%, 충남 2.7%, 전남 2.6%, 충북 2.3%, 강원

1.8%, 제주 0.7% 등이었다.
 서울과 경기, 인천을 합한 수도권 주주 비중은 56.3%에 달했다. 주주들의 주식 1주당 보유단가는 서울(1만1천135원), 울산(1만564원)이 평균치인 8천962원을 넘었다.
 거래소 관계자는 “수도권이 자본 집중도와 소득수준이 높아 다른 지역에 비해 주식보유 비중이 큰 것으로 파악되며, 같은 이유로 보유단가에서도 차이가 발생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장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함께 일합시다

업체명	모집분야	자격및경력	연봉(만원)	마감일	연락처
☎녹십자	[광주]OTC 제약 MR 경력사원	대졸/경력2년	회사내규	05/03	031-260-9318
☎RMBA	광주지역 사무직 여사원	초대졸/경력무관	1,200~1,400	05/03	02-391-6225
☎유니테크시스템	웹 디자이너 경력직	고졸/경력1년	회사내규	05/04	062-373-3176
서울검사주	정규직 비회계사 직원	고졸/경력무관	1,400~1,600	05/04	062-369-0790
☎창일	생산업무, 제품관리 및 영업관리	고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5/04	062-953-7952
동부회재 광주지점	[보험경력자] 영업소장님	대졸/경력2년	회사내규	05/04	062-220-8500
건설화학공업	영업, 기술, 총무 사원(서울/광주/안양)	초대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5/04	031-428-0621
☎남양모터스	렉서스 광주 서비스 업무 책임자	초대졸/경력무관	3,200~3,400	05/07	062-384-7713
☎도시환경ENG	경리/회계업무	고졸/경력1년	1,000~1,200	05/08	062-971-3072
주식회사 전광계기산업	전기, 전자관련 A/S 및 영업관리	고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5/10	062-521-7100
☎이인텔레서비스	LG텔레콤 고객센터 정규직 상담사	초대졸/경력무관	1,600~1,800	05/10	062-601-7203
☎백송기획	촬영, 편집, 연출 인원보충	고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5/10	018-693-0036

(광주잡코리아 512-6210 제공)